

“화면 주름, 손으로 훑어야 겨우 찾아… 폴더블 선택의 시대”

26 삼성전자

SAMSUNG

갤럭시 폴더블·워치 미디어 브리핑

갤럭시 Z8 시리즈 3종을 차례로 펼쳐봤지만 화면 중앙의 주름은 눈에 띄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폴더블의 고질적 약점을 개선하고 라인업도 2종에서 3종 체제로 넓혔다. 콘텐츠 감상에 특화된 가로형 모델을 새로 내놓고 폴립8의 무게는 180g까지 줄였다. 접었다 펴는 폼팩터 자체를 설득하던 단계를 지나 쓰임새에 따라 제품을 골라 쓰는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갤럭시 폴더블·워치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폴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의 개발 전략을 공개했다.

◆ 손끝으로 훑어야 느껴지는 주름

화면 주름을 줄인 비결은 신소재다. 3종 모두에 티타늄 합금 필름과 강화 티타늄 프레임이 결합한 ‘플렉스 티타늄’이 처음 적용됐다. 직접 펼쳐 살펴본 결과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던 주름은 정면에서는 물론 측면에서 비스듬히 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손끝으로 접히는 부분을 훑어야 미세한 굴곡이 겨우 느껴지는 수준이었다.

폴드8을 펼쳐 축구 영상을 재생하자 위아래 검은 여백이 줄면서 그라운드 전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소리도 화면 좌우에서 나뉘어 들리면서 공간감이 살아났다. 최대 밝기를 3000니트까지 끌어올리고 저반사코팅을 더한 덕에 실내 조명 아래에서도 화면이 거울처럼 비치지 않았다. 무게는 201g으로 역대 갤럭시 Z 폴드 가운데 가장 가볍다.

가장 눈길을 끈 기능은 ‘마이 팬캠’이었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특정 인물을 지정하자 인공지능(AI)이 해당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별도 영상으로 추출했다. 아이돌 무대에서 좋아하는 멤버만 담은 직



① 23일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에서 공개된 갤럭시 Z 폴립8 접고 편 모습(왼쪽부터)과 Z 폴드8 울트라, 갤럭시 Z 폴드8. ② 갤럭시 폴드 8의 접었을때와 폼때 모습. ③ 갤럭시워치9와 갤럭시 핏을 비교한 이미지. /구남영 기자

‘플렉스 티타늄’ 신소재로 주름 없이 폴드8 영상 재생하자 여백 사라지고 화면 좌우 소리나와 공간감 살아나 폴립8 두께 6.1mm에 무게 180g 역대 갤럭시 폴립 중 가장 얇고 가벼워 워치9 수면무호흡 중증도 분석기능

캠이나 운동회 영상에서 자녀만 골라낸 영상을 별도 편집 없이 만들 수 있다.

폴립8은 두께 6.1mm, 무게 180g으로 역대 갤럭시 Z 폴립 가운데 가장 얇고 가볍다. 커버 스크린인 플렉스윈도우는 홈 화면 구조를 메인 화면과 비슷하게 바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자 앱 목록이 바로 나타났다.

◆ “미디어 소비가 폼팩터 바꿨다”…S펜은 이번에도 빠져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라인업 재편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 폴드7의 사용자 데

이터에서 출발했다. 김재엽 MX사업부 스마트폰상품기획그룹 파트장은 “폴드7으로 바(bar)형 사용자를 대거 유입시키는 성과를 거뒀고 그 폼팩터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을 고민했다”며 “사용 행태를 분석해보니 미디어 콘텐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폴드 라인업이 둘로 늘었다. 기존 세로형은 ‘폴드8 울트라’로 이름을 바꿔 생산성에 특화된 최상위 모델로 배치했고, 새로 선보인 가로형에 ‘폴드8’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폴드8은 접었을 때 5.5형 10대 16커버 화면, 펼쳤을 때 7.6형 4대3 메인 화면을 갖췄다.

과거 LG전자 옵티머스뷰 등 4대3 화면 비 제품이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파트장은 “10여 년 전과 지금의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히 다르다”며 “당시에는 메시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짧은 층

이 구글링조차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검색할 만큼 미디어 콘텐츠가 사용의 근간”이라고 답했다.

S펜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S펜은 고유 자산인 만큼 적용 시점과 기술력을 계속 검토 중이며 적합한 시기가 되면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폴립8에 탑재된 자체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은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모델에 적용된다. 폴드8과 폴드8 울트라에는 쿼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들어간다. 갤럭시 워치는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데서 나아가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예방 중심 기기로 방향을 잡았다. 차세대 MX사업부 스마트폰상품기획그룹 프로는 “증상이 일어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예방 중심 케어가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워치9는 수면무호흡 중증도 분석과 평소 건강 지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면 알려주는 기능, 수면과 활동량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심장건강점수 등을 새로 적용했다. 직접 손목에 채워보니 이전 제품보다 얇아진 디자인이 먼저 체감됐고, 연결부 버튼을 누르면 밴드가 바로 분리됐다.

최상위 모델인 워치 울트라2는 아웃도어 기능을 강화했다. 하반기부터 이탈리아 다 이빙 장비 업체 마레스와 협업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심 40m까지 다이빙을 지원한다. 차 프로는 “다이빙 컴퓨터는 고가 장비인 데다 다이빙할 때 말고는 쓰지 않는다”며 “이 장비가 제공하는 안전 기능을 워치에서 구현해 다이빙 컴퓨터 없이도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터리 용량도 전작 590mAh에서 800mAh로 35% 늘었다.

한편, 갤럭시 Z8 시리즈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내 사전판매를 거쳐 8월 7일 정식 출시된다. 출고가는 12GB·256GB 기준 폴드8 울트라 257만7300원, 폴드8 227만8100원, 폴립8 168만3000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갤럭시Z, 폴더블 새 출발점… 7년 기술력, 쉽게 못 따라와”

노태문 사장, 기자 간담회

“폴더블 일상 돼… 고객 기대 다양 연내 8억명에 갤럭시 AI 제공할 것”

“오늘 공개한 갤럭시 Z 시리즈는 폴더블의 기준을 다시 세운 출발점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MX사업부장·사장)은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6’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폼팩터를 알리는 시기를 지나 이제 폴더블은 일상이 됐고 고객들의 기대 역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에 맞춰 콘텐츠 감상, 생산성, 휴대성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폴더블 라인업을 앞세우고, 에이전틱 AI와 AI 헬스 경험을 확대해 차세대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갤럭시 Z8 시리즈는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을 구현했으며, 새롭게 적용한 ‘플렉스 티타늄’ 기술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겸 MX(Mobile eXperience) 사업부장이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직후 국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노 대표는 “폴더블은 기술로도 시장으로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더 많은 기업의 시장 진입은 이미 폴더블이 대세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폴더블을 처음 선보인 이래 7년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고객에 대한 이해는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경쟁력”이라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한발 앞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폴더블의 다음 경쟁력은 하드웨어를 넘어 AI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는 이제 누구나 당연하게 기대하는 인프라가 되고 있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쉽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8억 명에게 갤럭시 AI를 제공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AI를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며 “AI는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나온다”며 스마트폰, 워치, TV, 가전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삼성전자의 강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만큼 다양한 디바이스로 일상

곳곳에 함께하는 회사는 없다”며 “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민감한 개인 데이터는 기기 내부에 두고, AI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AI 헬스 경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새로운 갤럭시 워치는 수면, 회복,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삼성 헬스는 수면·운동·식사·마음 건강에 더해 ‘생체 징후’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노 대표는 “건강 관리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 삼성 헬스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AI와 디지털 헬스 기술을 결합해 한층 개인화된 건강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

metro